자동차 연료비 부담 갈수록 “태산”

1-6월 상승률 10% 육박 ... 에너지세제 개편에 주유카드 혜택도 줄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2007년 상반기 자동차 연료비가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8.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고, 주요 신용카드도 7월부터 금융감독 당국의 지시로 카드 주유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석유제품 구매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1-6월 자동차 연료비는 8.5% 급등해 전체 소비자물가(1.9%)의 4.5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각각 9.6%와 9.3% 올라 거의 10%에 육박했고, 경유도 5.6% 정도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7월 중순에는 유류세제 개편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요인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도 자동차 연료비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비율을 100대85대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 중순부터 경유세율이 인상돼 소비자가격 부담이 리터당 35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던 주유할인·적립 혜택은 7월부터 줄어든다. 카드회사들은 그동안 할인카드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30원까지, 적립카드는 리터당 최고 120원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금융 감독당국이 카드회사에 할인·적립 폭 축소를 구두 지시하면서 카드회사들은 7월부터 주유 할인카드는 리터당 최대 60원, 적립카드는 리터당 최대 80원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05>